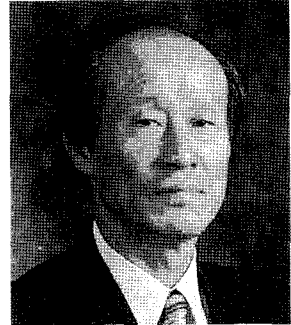


일관파렛트수송시스템은 우리사회 전체의 공통기반시스템



(사) 한국파렛트협회
전무이사 박 은 규

1. 물류표준화는 국가경쟁력이다.

물류의 국가경쟁력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물류효율화이며 물류효율화는 우리나라 전체의 모든 물동량의 흐름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물류효율화의 중요한 방안의 하나가 물류표준화이며 물류표준화의 기본은 표준파렛트에 의한 일관파렛트제이션이라고 생각한다. 물류표준화는 물류의 소프트웨어부에서 물동량의 거래단위나 규격, 또는 중량 등 포장단위를 표준화하여 이를 기본단위화하는 파렛트 및 컨테이너를 규격화 함으로써 물동량 흐름의 전과정을 UNIT LOAD SYSTEM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하드웨어부에서는 수송장비나 보관시설, 하역기계 등을 상호 정합성을 이루도록 규격화하여 물류의 일관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류표준화는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기업과 기업간의 수직적 연계체제, 동종업계의 수평적 연결, 지역적 공동화 등 우리나라 산업계 전체가 망라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효율화를 기함으로써 모든 산업체는

물론 국가 전체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임이 분명하다.

2. 파렛트규격의 표준화로 열린 시스템

지금 우리는 지극히 고도화된 물류의 기능과 효율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물류현실에서 단순히 파렛트를 사용한 작업간의 효율화를 권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축하여야 할것은 우리나라 산업계 전체가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공통의 기반을 가진 일관파렛트 수송시스템의 구축이며 그 출발점은 파렛트 규격의 표준화이다. 우리가 알고있는 바와 같이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산업계에 공통규격의 표준파렛트가 보급되어져 있고 모든 상품의 규격과 핸들링 수송기기, 창고 점포의 규격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전체에 사이즈 표준화와 정합화로 엄청난 효과의 메리트를 향유하고 있다.

물론 각 기업이 각각의 파렛트시스템에 의하여 개별적인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제한 하는 것은 허용될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전체의 물류효율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이제는 사사로운 의견을 버리고 사회전체에 최대의 메리트를 부여하는 표준파렛트에 의한 일관파렛티제이션을 과감히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계에서 파렛트 그 자체는 상당히 이용되면서도 이러한 일관파렛티제이션이 좀처럼 보급되지 않고있는 것은 자기회사내의 보관만 혹은 자사상호간의 수송만이라고 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사용이 주류였기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파렛트의 역할은 기업이나 업계의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나라 산업계 전체에 기반물류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내에 단혀있는 물류구조를 과감히 열린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오늘 뿐만이 아니고 내일에도 우리나라 물류의 효율화를 확실히 보장하는 길이며 국가경쟁력 확보의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3. 열린 시스템, 일관파렛트수송 시스템의 새로운 인식과 구축에 참여를!

개별기업이 각각 자사 물류의 최적시스템을 각각 자사 기준에 입각하여 아무리 완벽하게 구축하였다 해도 우리나라 산업사회 전체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되며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예를들면 모두가 표준규격의 파렛트를 서로 사용함으로써 화물의 출발지, 도착지가 멀리있어도 공파렛트만을 다시 들

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착지쪽에서 다른 화주의 화물용으로, 다시 이 파렛트를 활용하는 등 산업계 전체에 순환시켜 가장 손실이 없이 저코스트를 실현하는 것이다. 일본은 자사물류최적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뛰어난 물류선진국이지만 이러한 일관파렛티제이션 등 사회공통시스템 구축면에서는 중진국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물류효율화 추진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성과 일관파렛티제이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미 구축된 각각의 자사물류시스템을 고쳐 산업사회 전체가 통일규격화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각 개별기업의 개조비용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그 진척이 미미한 실정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각 선예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그 전철을 밟지 않기위해서도 시급히 물류표준화, 즉 표준파렛트에 의한 일관파렛트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문제는 KS규격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특정한 파렛트의 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해서도 안된다는데에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전 산업계의 경영인, 물류인, 정부의 물류관련기관 모두가 물류에 관한한 국가산업전체와 각 기업의 문제가 하나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류효율화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출발점”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위에서 우리나라 산업사회전체의 공통 기반 시스템, 표준파렛트에 의한 일관파렛티제이션 추진에 단혀있는 기업내 물류구조를 활짝열고 열린시스템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도 물류선진국이 향유하는 엄청난 물류효율의 메리트를 쟁취하고 튼튼한 국가경쟁력을 구축하자.